

상호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戰后 일본이 家電 분야를 강하게 지향하고 가전제품에서부터 深化시켜 나가 電子工業 尖端技術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왔듯이, 우리의 電子産業 구조의 고도화는 장기안목에서의 자율 성장을 시도하면서 또한 국가 이익과 일치될 수 있도록 核心戰略 부문으로 구심점을 가다듬어 가는 분위기가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외 기술도입 일변도의 안이성이나 정부기관 주도의 연구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소 부족한 研究開發 투자 규모일망정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건전한 競爭 원리에 입각한 개개 기업의 비즈니스 의욕에 직결시켜 나가는 總力技術 개발 체제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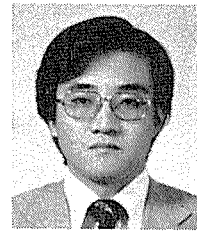
야흐로 강력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제 우리 전자업계인들은 이번 電子工業振興法の 개정을 계기로 삼아 先導産業의 긍지와 책임을 되살려 이 소망스러운 高度化 발전에 기필코 실현되게끔 새로운 각오로써 임해야 될 줄로 안다.

●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바란다 ●

特 輯

# 一貫性있고 体系的인 支援 育成



李 東 鎬

東洋나이론(株) 電子事業部 企劃課長

1970年 초기에 우리나라 電子工業振興法이 制定되고 電子工業政策이 본격화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電子工業의 年 평균 成長率이 46.5%(製造系 평균 18.5%), 年 평균 輸出 증가율이 59.5%(重化學工業 製品 輸出 中 2位, 1980年 輸出 額 20億弗로 전체의 11.4%)로 높은 신장율을 보였으나 商品 구조상으로 볼 때 家庭用 및 部品 위주였으며 附加價值가 높

고 고액의 技術開發이 필요한 産業用機器(컴퓨터 등)와 半導體 部品 분야가 매우 脆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先進諸國은 컴퓨터, 半導體 등 주요 電子技術 部品の 最新 技術과 部品の 供給을 기피하는 등 技術武器化 傾向이 있는바 이들은 電子工業의 核心技術로서 극히 중요하며 막대한 開發費用이 소요되므로 民間企業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國家事業(National Project)化 制度를 도입하여 國家的인 차원에서 育成하지 않으면 先進工業國을 뒤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國內의으로는 經濟 및 社會的 與件의 변화로 현재와 같이 勞動集約의 부문(家庭用 및 部品)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보다 技術集約의이고 附加價值가 높은 産業用機器 중심으로서 生産 구조의 高度化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現行 法上의 支援制度를 보다 合理的으로 改編하고 國家的 차원에서 電子工業 育成을 위한 法 體制를 확립하기 위해 法을 改正하게 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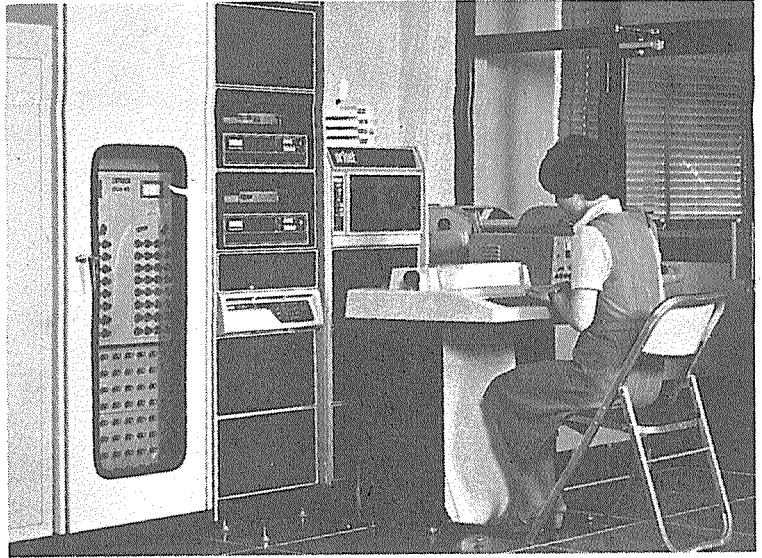
改正된 電子工業振興法의 主要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全産業의 高度化를 촉진하는 핵심 부문으로 부각된 컴퓨터를 電子機器 등의 범위에 포함시킴.

둘째, 品目の 특성과 開發의 단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支援策을 강구할 수 있도록 「電子工業 高度化計劃」체제로 변경함.

세째, 電子工業 高度化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財源의 확보를 위하여 「電子工業振興基金」을 설치함.

첫째 項에 있어서 컴퓨터를 電子機器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주어진 條件上 고려해야 할 점인 省에너지 및 資源節約産業, 技術頭腦의 集約産業, 高附加價值性, 고도의 成長性, 高性能 精密工業 발전에 波及效果의 至大 및 非公害産業이라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産業用 製品이며 時宜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專門 생산업체의 육성



에 있어서 機種의 중첩생산이 없도록 하고 製品上 각종 標準化를 조속히 실현하여 國力の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項에 있어서 劃一的인 支援체제를 電子工業 品목의 특성과 開發의 단계에 따라 特性에 맞는 지원을 하므로써 제한된 國力과 財源을 가장 投資效率이 높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째 項에 있어서 電子工業 振興基金은 政府와 民間企業의 出捐으로 조성될 예정이나 이의 按配를 最適化하는 것과 조성된 基金의 效率性의 極大化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각 부문간(家庭用, 産業用 및

部品)의 우선 순위 (Priority)를 설정하고, 각 부문중에서 品目別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투자하는 것이 基金 活用の 成敗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國內外的인 제반 여건을 볼 때 家庭用機器 및 電子部品 분야는 生産合理化를 추진하여 國際競爭力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生産用機器(특히 컴퓨터) 및 半導體 등은 연구개발이 불가변한 점을 고려하여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투자의 效率이 가장 높은 品목에 대해서는 國家事業(National Project)化하여 일괄성 있고 体系的인 育成策을 강구하기 위해서 간선 法 체제의 정비를 先決했다는 의미에서 이번 法 改正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